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여성 정당인 對 변호사 대결

	
권향엽(52)	서동용(55)
학력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국장	(전)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인권특보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 변호사
주요 공약 ·공공 체육시설·도서관 확충 ·유아교육 질적혁신 위한 국가책임 강화 ·다양한 선진 교육문화콘텐츠 제공	·예술인 기본소득제 추진 ·농어민수당의 중앙정부 지급 확대 법제화 ·삼진강 3대 축제 남도 대표 축제 활성화

광양·곡성·구례

권향엽, 튼튼한 인맥·경험 강점 전남지역 후보 중 여성 홍일점 서동용, 지역 법률위원장 영입 민변 변호사 활동 바닥 다져

설의 지역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학교 공적 돌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국립공원·숲속 다양한 야영장 개발 ▲보행안전 개선과 사고위험도로 개선 ▲항만물류산업 인제 등 4차 산업시대 산업환경 살피기 ▲여성폭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변호사인 서동용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회 법률인권위원장으로 인제 영입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 인권 특보 등을 지냈다. 여순 사건 재심 법을 대리인도 맡고 있고, 민변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재무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그동안 조직과 바닥 민심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동네 변호사로, 수 년간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논리적으로 대변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호흡해왔고, 지역에서 학생·노동자·시민·지역 운동에서 맺어 온 인맥이 튼튼한 점이 강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촛불 민주시민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임치인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광양보건대 정상화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기능 강화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센터 및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광양항 환적항 기능 강화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농어촌 전문가 vs 관료 출신

	
김승남(53)	한명진(55)
학력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주리대 대학원졸업(경제학박사)
경력 (전)민주당 고흥보성정읍강진군 지역위원장 (현)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전)대통령수석 자치분권위원회 재정국장 (전)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주요 공약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농어민기본소득 보장법 제정 ·산림 및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 직불제 수산업, 임업, 축산업으로 확대 ·농어민수당, 농어촌수당 도입 ·지역 SOC사업의 지역도입제 의무 확대 등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정활동 경험 풍부 민주화 경력 앞세워 표심 공략 한명진, 고시출신 예산분야 정통 정치 신인 가산점...판세 안개속

초기지화, 지역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전담보좌관제 운영,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원장터 상설 개최를 약속했다.

농어촌을 선거구로 둔 두 후보자의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농어촌 및 농어민 밀착형 공약이라면, 한 예비후보는 예산 확보와 지역 개발에 방점을 찍은 듯한 모습이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농어촌 공약으로 FTA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참여의 무화로 개정,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응,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법제화, 농어민기본소득 보장법 제정, 산림 및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전남 농어촌 관광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산과 전남남동부권으로 쏠린 관광객을 강진·특량·신인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것이다. 울타리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김 예비후보가 다소 앞선 결과가 있었지만, 한 예비후보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아 판세는 안개속이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정권 창출 기여,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 전두환·노태우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경력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권 탄생을 견인했다. 재선의원으로 문재인정권 성공과 농어민 권의 보호를 이끌고 싶다"며 "지난 19대 의원 시절 내리 4년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농어촌 전문가'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다.

이에 맞서는 한명진 예비후보는 행정 고시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맡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 슬로건으로 "지역발전의 확실한 변화, 정부예산 1조원 확보"를 내걸고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쏟아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4개군 전

광주시 신규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순항'

빛그린·평동3차 연말까지 완공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건립 예정

2017년 조성에 들어간 이들 시설은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규 조성 중인 산업단지 3곳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 대촌 일대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에너지 밸리 산단에는 사업비 144억원을 들여 처리용량 하루 1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깨끗이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단 기반조성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단에 154억원을 들여 처리용량 하루 2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시는 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배치할 방침이다.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평동3차 산단에는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처리용량 하루 550t 규모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김재식 시 하수관리과장은 "폐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 고농도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생산력을 높이고 사업장과 산단 주변의 환경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함평·세풍일반산단 '중기 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나주일반산단 등 4곳 재지정

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내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오는 3월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패드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2025년까지 재지정됐다. 도내에서는 모두 9개 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됐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제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

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제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

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제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월급제 희망자 6월까지 접수하세요

전남도, 지급 최소금액 하향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100㎡에서 올해 3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윤현석 기자 chadol@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